한국문학논총 제65집(2013. 12) 121~152쪽

〈최척전〉의 작품 구성 방식과 가문 지향적 성격

정 규 식*

차 례

Ⅰ. 서론
Ⅱ. 애정서사와 가족서사의 관계
1. 남녀관계의 지양과 부부관계의 지향
2. 직접적인 만남의 부재와 혼전 동침의 불이행
3. 기자 치성과 후사의 존재
Ⅲ. <최척전>에 형상화된 가문 지향성
1. 혈연관계를 통한 후사 의식
2. 혼인관계를 통한 가문 지향
3. 여성인물의 가문 지향
Ⅳ. 결론: 소설사적 의의를 대신하여

KYOBO 교보문고

국문초록

<최척전> 연구의 핵심은 애정서사가 중심인 전반부와 가족서사가 중심인 후반부의 관련 양상을 면밀히 살펴 그것에 의거하여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최척전>의 전반부는 첫째, 남녀주인공이 남녀관계가 아니라 부부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는 옥영이, 남자가 아닌 남편으로서 최

* 동아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의전담교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척을 맞이하려는 태도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둘째, 남녀주인공의 혼전 동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연애를 통한 남녀관계로서의 애정 추구보다는 혼인을 통한 부부관계로서의 행복 추구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셋째, 기자 치성을 통한 후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작품에서 남녀 주인공이 추구하는 행복은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혼인을 통해 아들을 낳아 후사를 도모하는 데서 완성된다. 이 셋은 기존 작품과 변별되는 <최척전>의 특징이며 작품 후반부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최척전>의 후반부는 기존 작품처럼 남녀관계를 바탕으로 한 애정 지향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전란이라는 역사적 질곡 속에서 최척 일가의 이산과 재회가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데 이 과정에는 다양한 혈연관계와 혼인관계가 등장한다. 그로 인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부부, 부모, 부자, 모자, 고부, 조손, 사돈 등으로 확장된다. 이는 혈연과 혼인을 통한 가문 형성 과정을 우리의 소설에서 최초로 노정(露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등장인물들 역시 가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의 감정을 토대로 한 '가문애(家門愛)'를 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최척전>은 본격적인 가문소설이 등장하기 이전의, 가문의식(家門意識)의 잠재태로서 '가문애'가 발현되는 가문소설의 맹아적 면모를 갖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최척전>, 애정서사, 가족서사, 가문애, 가문지향, 가문소설

Ⅰ. 서론

최근 <최척전>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동아시아 공동체론에 입각한 이웃과 인간애에 관한 논의들이 새롭게 제출되어 담론의 장을 달구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있는 실정이다.[1] 주지하는 바, <최척전>의 배경은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베트남으로까지 확장되어 있으며 인물 역시 한, 중, 일 동아시아 삼국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공동체론에 입각한 논의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작품의 서사 전개에 있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았던, 최척 일가의 기이한 만남이 중국인, 일본인 등과 같은 이웃 나라 사람들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관점의 논의는 의미 있는 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이 작품 자체가 지니는 구조적 특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뒷받침된 결과이어야 함에도 그러한 면이 다소 부족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최척전>의 소설사적 의의를 적실하게 고찰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본고는 이 점에 주목하여 <최척전>의 작품 구성 방식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나아가 소설사적 의의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 작품은 처음 소개[2]된 이후,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불교적 색채가 강한 소설[3]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4]이 제기되면서 <최척전>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애정전기소설적 측면, 전란으로 인한 이산과 만남의 사실성, 작가의 전란 체험의 반영, 이본에

1) 대표적인 논의를 들면 다음과 같다.
진재교, 「월경과 서사-동아시아의 서사체험과 '이웃'의 기억」, 『한국한문학연구』 46집, 한국한문학회, 2010.
최원오, 「17세기 서사문학에 나타난 월경의 양상과 초국적 공간의 출현」, 『고전문학연구』3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김현양, 「<최척전>, '희망'과 '연대'의 서사」, 『열상고전연구』24집, 열상고전연구회, 2006.

2) 이명선, 「朝鮮文學史」, 『朝鮮文學社』, 1948.

3) 김기동, 「불교소설 <최척전> 小考」, 『불교학보』11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1974.
김기동, 『李朝時代小說硏究』, 성문각, 1974.

4) 박희병, 「<최척전>-16·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과 가족이산」,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96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관한 논의, 홍도 이야기와의 연관성, 작품의 後識 문제, 주제론적 측면, 소설사적 위상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제출된 상태이다.[5] 이 가운데 본고의 논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논의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작품이, 초기소설의 리얼리즘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17세기 소설로 하여금 리얼리즘의 진경을 이룩하게 하는 데 선도적으로 기여[6]했다고 평가하면서 작품의 구도는 옥영과 최척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홍도 모녀와 그 아버지의 이별과 만남이라는 두 축 속에서 당시의 전란이 초래한 가족 이산의 고통과 강한 가족애에 의한 재회의 달성[7]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고 논하였다.

또한 기존의 작품과는 달리 전기모티프는 찾을 수 없고 애정 모티프와 전쟁 모티프가 결합하여 온전한 가족애를 복원하는 방향[8]으로 전개되면서 최척과 옥영의 애정은 가족애로 확산되어 현실적 시련을 극복하는 방어기제가 되어 전란 중에도 온 가족의 기이한 만남을 가능[9]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작품 속에 형상화된 공동체적 가족애[10]가 바로 전란으로 인한 이산이라는 급박한 현실에 대항하는 힘이 된다고도 하였다.

나아가 <최척전>을, 결핍된 가정에서 자란 인물들이 전란을 겪고 이산과 재회의 반복을 통해 충족된 가족 구성원을 지닌 가정을 이룩하려는 의지[11]가 반영된 작품이라 하였으며, 또한 개인의 정체성이 가정이

5) 기존 논의에 관해서는 다음의 자료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정명기, 「<최척전>」, 『한국고소설연구』, 일지사, 1993.
민영대, 「<최척전> 연구사」, 『고소설연구사』, 월인, 2002.
6) 박희병, 앞의 논문, 91쪽.
7) 박희병, 앞의 논문, 94~95쪽.
8) 김문희, 「17세기 애정소설의 장르적 역동성」, 『한국고전연구』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64쪽.
9) 김문희, 위의 논문, 59쪽.
10) 김문희, 위의 논문, 59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나 가족의 완전한 구성에서 탐색될 수 있다는 새로운 관념이 드러나고 있다[12]고도 하였다.

최근에는 논의의 시각을 월경(越境), 동아시아, 인간애 등으로 확장하여 작품의 주제의식을 다양한 방향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최척 일가가 재회하게 되는 근원적 추동력에는 장육불(丈六佛)의 음조(陰助)와 동아시아 민중의 인간애가 있으며, 나아가 이 인간애[무연자비(無緣慈悲)]를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인의 연대가 전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13]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최척전>을 가족적 인간애 또는 가족애의 확장으로서의 인간애를 담은 작품으로 이해하면서 육장불의 출현, 중국인 송우의 모습, 일본인 돈우의 모습 등을 통해 불교적 자비와 가족적 인간애가 적절히 결합한 작품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결국, <최척적>은 가족적 인간애가 초국적 세계관으로 제시[14]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였다.

또한, <최척전>은 동아시아로까지 체험서사를 확대하고 그 공간에서 타자인 따듯한 이웃을 발견해가는 서사이면서 따듯한 이웃의 도움과 인간애로 전란의 상흔을 치유하고, 가족의 재회도 가능했던 작품[15]이라고 했다. 따라서 <최척전>은 우리의 심상을 일깨워 인간의 선한 심성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애를 드러내고 따뜻한 이웃을 사유하게 한다[16]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본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몇몇의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들은 <최척전>의 풍부한 작품성과 문학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남는다. 특히 본

11) 김문희, 「<최척전>의 가족 지향성 연구」, 『한국고전연구』 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183쪽.
12) 김문희, 위의 논문, 187쪽.
13) 김현양, 앞의 논문, 96쪽.
14) 최원오, 앞의 논문, 203쪽.
15) 진재교, 앞의 논문, 131쪽.
16) 진재교, 앞의 논문, 159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고의 논점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첫째, <최척전> 전후반부의 구성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작품의 온전한 해석이다. 그간의 다양한 논의들은 전후반부 가운데 어느 하나에 집중한 경향이 강하다. 앞서 살핀 논의들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후반부에 등장하는 다양한 서사적 특성들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기실 후반부의 해석은 전반부와 연관되는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간의 결과들은 이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비교적 선명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며 이러한 논의의 과정을 바탕으로 <최척전>의 작품 구성방식에 관한 새로운 해석과 장르사적 측면에서의 소설사적 의의에 접근하고자 한다.[17]

Ⅱ. 애정서사와 가족서사의 관계

<최척전> 연구의 관건은, 전반부에서 펼쳐지는 최척과 옥영의 애정서사와 후반부에서 전개되는 최척 일가의 이산 및 만남으로 이루어진 가족서사[18]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데에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전후반부 가운데 어느 한 쪽을 중심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전반적 흐름을 고려하여 해석하기는 하였으나 전후의 관계를 정치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17) 본고는 서울대 도서관 일사문고본을 저본으로 삼아 여타의 본을 참고하여 교합한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박희병 표점·교석, 소명, 2005)에 수록된 <최척전>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또한 작품의 번역은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박희병/정길수 편역, 돌베개, 2007)의 <최척전>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18) <최척전>의 내용 가운데 정유재란(1597)의 발발을 기점으로 최척 일가가 뿔뿔이 흩어진 후 최종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이산과 만남의 과정을 '가족서사'로 칭하기로 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최척전>의 작품 구조가 기존의 애정전기소설에 비해 상당히 체계적이라는 지적은 더러 있었다.[19] 민영대는 최척에 대한 인물묘사, 기자(祈子) 정성, 임란발발과 호족의 명 침략, 진위경의 동정(東征), 최척 부부의 시화담(詩話談), 옥영의 일본행과 귀환 항해 등을 통해 작품의 주도면밀함을 언급하였으나 이러한 지적으로는 작품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유기성을 부각시키기에는 부족하며 또한 작품의 표면에 치중하여 이면을 간과한 측면도 있다.

기실 <최척전>의 전반부는 기존 애정서사의 영향을 다분히 받았다고 할 수 있다.[20] 하여 독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익숙한 내용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작품의 후반부는 기존의 어떤 작품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최척전>의 작가 조위한(趙緯韓)은 소설 창작에 뛰어난 감각을 지닌 문재(文才)였음이 분명하다. 결국, <최척전>의 작가는 기존의 다양한 장르 관습 하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저술 의식을 바탕으로 '어디서 본 듯하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작품'을 완성하였는데 그 핵심이 바로 전후반부의 연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척전>을 최척과 옥영의 만남과 이별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총 4회의 만남과 3회의 이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척전>은, 최척과 옥영이 정생원의 집에서 처음 만나는 1차 만남에서 시작되어, 최척·

19) 민영대, 「<최척전> 고」, 『고소설연구』6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265~277쪽. 민영대, 『조위한의 삶과 문학』, 국학자료원, 2000, 275~290쪽.

20) 엄태식은 <최척전>이 <이생규장전>, <만복사저포기>, <홍도 이야기>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엄태식, 「<최척전>의 창작 배경과 열녀 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106~117쪽.) 하지만 연구자는 장육불의 존재가 <만복사저포기>에 등장하는 부처의 영향 하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최척전>에서 장육불은 소재적 차원으로 작품의 구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을 할 뿐이기 때문에 <만복사저포기>의 부처와는 사뭇 다르다고 생각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몽석·진씨가 남원에서 최숙·심씨를 만나고 다시 옥영·몽선·홍도를 만나는 4차 만남을 끝으로 종결된다. 이 과정에서 펼쳐지는 전란의 상흔과 이별의 아픔, 그리고 만남의 기이함 등은 독자들로 하여금 몰입을 통한 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최척과 옥영의 베트남에서의 기이한 만남은 이 작품의 백미라 할만하다.

이러한 다양한 만남과 이별의 구조를 지닌 <최척전>은 1차 만남에서 2차 만남(혼사장애를 극복하고 혼인한 부부로서의 만남)까지의 과정이 전반부, 2차 이별(정유재란으로 인해 모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별)에서 4차 만남까지의 과정이 후반부에 해당한다. 전반부는 최척과 옥영의 애정 중심의 서사이고 후반부는 전란으로 인한 최척 일가의 이산과 재회 중심의 서사이다. 전반부의 애정서사는 기존의 애정전기소설의 영향 하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후반부의 가족서사에는 기존의 어떤 작품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최척전>만의 독특한 서사적 특징이 노정된다.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떻게 관계 맺음 되는가? 주지하는 바, <최척전>의 전반부는 기존의 애정전기소설의 영향 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최치원>, <이생규장전>, <만복사저포기>, <하생기우전>, <주생전>, <상사동기>, <운영전> 등 기존의 애정전기소설과 다음의 세 지점에서 변별된다. 첫째, 여성 주인공의 구애 목적이 남편 구혼에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애정전기소설에서 남녀 주인공은 연애를 목적으로 남녀관계를 지향하는 반면 <최척전>의 옥영은 최척과의 결연을 통한 부부관계를 지향한다. 둘째, 남녀 주인공의 직접적 만남 및 혼전동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의 애정전기소설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강한 성적 이끌림에 의해 부모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들의 선택에 의한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육체적 관계까지 나아가지만 <최척전>은 그렇지 않다. 셋째, 기자(祈子) 치성(致誠) 및 후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애정전기소설에서는 남녀의 육체적 관계가 다양하게 펼쳐지지만 어떤 작품에서도 아이 낳기를 바라지 않으며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그로 인해 2세가 탄생하지 않는다.[21] 즉, 기존의 애정전기소설에서는 성적 관계가 남녀의 애정을 지향하지만 번식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작품의 전반을 지배하는 코드는 성적 욕망일 수 있었다. 하지만 <최척전>의 주인공들은 결혼 후, 아이 낳기를 간절히 바랐으며 그 후 아들을 얻게 되어 기존의 애정전기소설들과는 다른 방향의 성취 욕망을 발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1. 남녀관계의 지양과 부부관계의 지향

기존의 애정전기소설의 남녀 주인공은 독점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지향한다. 거기에는 어떠한 부수적 요소도 개입되지 않으며 단지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남녀관계가 지속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관계를 맺은 두 주인공이 더러 부부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남녀관계의 연장일 뿐이며 혼인의 전후에서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들은 만날 때부터 남녀의 애정에 몰입되어 있으며, 혼인 후에도 가족으로서의 부부의식이 희릿할 뿐만 아니라 달콤한 애정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랄 뿐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부부는 서로에 대한 독점적인 존재로서의 남녀관계의 또 다른 언표일 뿐이다.

하지만 <최척전>은 다르다. 이 작품은 초반부부터 두 주인공이 단순히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남녀관계보다는 부부관계를 분명히 지향하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최척에게 옥영의 편지를 전달해준 춘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 댁 주인이신 정생원 어른이 저희 마님의 친척이시라 잘 대접해 주고 계시지요. 지금 아씨의 혼처를 구하고 있사오니 마땅한 신랑감을

21) 표면적으로 <하생기우전>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하생기우전>에 등장하는 후사는 작품의 통속화로 말미에 부가된 것일 뿐, 작품의 서사 전개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굳이 예외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랍니다."[22]

인용문에 분명히 나타나듯이, 옥영이 정생원의 집에 머문 것이나 최척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모두 남녀의 애정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남편 구혼에 있었다. 옥영의 남편 구혼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최척의 편지를 받은 옥영이 최척에게 답서를 보내는데 거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 "제 나이 열다섯이오나 아직 혼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와중에 도적들이 횡행하니 제 몸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포악한 자의 손에 몸을 더럽히지나 않을까, 늘 걱정이지요. 이런 까닭에 노모께서도 상심하시며 걱정이 많으세요. 하지만 제 걱정은 어찌하면 훌륭한 남편을 만날까 하는 것이랍니다. 저의 백 년 기쁨과 괴로움이 남편에게 달려 있으니 만일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면 제가 어찌 그 사람을 우러르며 일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23]

옥영의 집안은 전쟁 중에 유랑하는 고단한 신세로 그 와중에 참혹한 일이라도 당할까 두려운 상황이다. 옥영의 어머니는 옥영이 온전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옥영 자신도 훌륭한 남편을 만나 지금의 고단한 삶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도모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옥영은 최척과의 결연을 통해, 남녀관계로서의 애정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로서의 행복을 지향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최척

22) '此家主人 與兒主母家族 待之甚厚 將欲爲娘子求婚 而未得其佳婿耳', <崔陟傳>(원문은 박희병 표점·교석,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 2005, 423면; 번역은 박희병/정길수 편역,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베개, 2007, 18면).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원문 및 번역은 위 자료들을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이하 원문과 번역의 인용은 각각의 면수만을 제시한다.

23) '年垂及笄 尙未移天 常恐一朝兵戈搶攘 盜賊橫行 則難保珠玉之沈碎 不無强暴之所汚 以此老母傷心 以我爲念 然而猶所患者 絲蘿所托 必在喬木 百年苦樂 實由他人 苟非他人 豈可仰望而終身', <崔陟傳>, 424면/20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전> 이전의 기존 작품에서는 이러한 여성 주인공을 발견할 수 없다. <최척전>만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남자보다는 남편을 지향한 옥영의 최척 구혼은 단순히 둘의 애정만이 중시되는 남녀관계가 아니라 가족적 행복을 중시하는 부부관계를 추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 직접적인 만남의 부재와 혼전 동침의 불이행

부부관계의 지향은,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 않으면서 혼전 동침이 존재하지 않는 것[24]과 연관되어 있다. 기존의 애정전기소설은 남녀 주인공의 첫 만남에서부터 육체적 관계를 맺는다. 부모의 허락 없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남녀 주인공이 은밀한 곳에서 만나 육체적 결연을 맺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강한 성적 욕망이 작용하면서 서로에 대한 성적 이끌림을 확인한다. <최척전> 역시 이러한 점이 부분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 "하루는 정생원이 식사 중이라 아직 나오지 않고 최척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홀연 창문 틈으로 쪽지가 하나 떨어졌다. 최척이 쪽지를 주워 보니 시집 못 간 여자가 짝을 구하는 마음을 노래한 시인 『詩經』<摽有梅>의 마지막 장이 적혀 있었다. 최척은 마음과 혼이 훨훨 날아오르는 듯해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이슥한 밤에 여인의 방에 뛰어 들어가 몰래 비연(非煙)을 껴안듯이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내 뉘우치고 고려 때 김태현(金台鉉)의 고사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24) 엄태식은 혼전동침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옥영의 강화된 정절 의식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엄태식, 앞의 논문, 106~108쪽) 이종필 역시 엄태식의 논의의 연장선에서 '野合 서사'에 대한 거부를 열녀 의식으로 바라보았는데(이종필, 『조선중기 전란의 소설화 양상과 17세기 소설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3, 50~51쪽.) 이들의 논의는 <최척전>을 열녀담론 중심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견해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최척전>에서 혼전동침이 이루어지 않은 것은 일종의 이념적 혹은 의식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작품의 구성 방식의 문제와 더 밀접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장치로 인해 뒤에 이어질 서사 전개의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경계하였다. 가만히 이런저런 생각을 하자니 마음속에서 도덕과 욕망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25]

인용문은 옥영으로부터 쪽지를 받은 후의 최척의 심리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 옥영이 보낸 『詩經』의 <摽有梅>는 '標有梅 頃筐塈之 求我庶士 迨其謂之(떨어지는 매실, 광주리로 담아내듯. 나를 갖고 싶은 사람은 달려와 말만 하세요.)'라는 내용의 시로써 여자가 남자를 그리워하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시를 본 최척은 당장이라도 옥영의 방에 뛰어 들어 옥영을 품고 싶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다분히 성적 욕망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장면은 <이생규장전>, <하생기우전>, <상사동기>, <위경천전> 등 기존의 애정전기소설에서 자주 발견되는 장면인데 <최척전> 역시 부분적으로는 이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옥영의 지향점이 남녀의 육체적 관계 맺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최척의 성적 욕망이 즉각적으로 충족되지는 못한다. 옥영은 남자보다는 남편을 지향했기 때문에 둘은 직접적인 만남으로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절차를 통한 혼인의 과정을 밟게 된다. 다시 말해, 춘생을 통한 간접적 만남을 매개로 혼전 동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혼인이라는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최척전>의 작가는 단지 직접적인 만남과 혼전동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그 이유에 대한 나름의 장치를 하고 있다.

"어제 창문 틈으로 시를 떨어뜨린 것은 결코 음탕한 마음에서가 아닙니다. 다만 낭군께서 저를 어찌 생각하실지 알고 싶었을 따름이어요. 제

25) '一日 上舍方食不出 陟獨座誦書 忽然窓隙中 投一小紙 取而視之 乃書『摽有梅』末章 陟心魂飛越 不能定情 思欲昏夜唐突以窃而抱 旣而悔之 以金台鉉之事自警 沈吟思量 義欲交戰', <崔陟傳>, 422면/16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가 비록 사람됨은 못났으나 애당초 거리에서 몸을 파는 무리는 아니니 어찌 사통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반드시 부모님께 아뢰어 정식 혼례를 올려야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정절과 신의를 지켜 남편을 지극 정성으로 공경할 것입니다."[26]

인용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한껏 표출한 최척의 답서에 대한 옥영의 반응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자신은 음탕한 여자가 아니며 몸 파는 사람도 아니므로 사통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즉, 부모의 허락이 없는 상황에서는 혼전 동침이 불가하며 따라서 정식 절차를 밟아 혼인 올리기를 바란다고 한다. 최척은 기존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남성 주인공처럼 성적 욕망을 발현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반면 옥영은 기존의 작품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여성 주인공의 면모를 갖춘 인물로 등장한다. 이는 옥영이 처음부터 훌륭한 남편감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훌륭한 남편을 만나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옥영의 바람으로 두 남녀의 직접적인 만남은 부재하며 혼전 동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옥영이 남녀관계를 통한 애정만을 지향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통한 가족의 행복을 지향했기 때문에 둘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전 동침도 없었던 것이다. 그래야만 기울어져가는 집안을 회복할 기반이 되는 온전한 가족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기자 치성과 후사의 존재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된 것만으로는 온전한 가족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을 위해서는 의당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의 존재, 즉 후사가 있어야 한다. <최척전>은 이 점에서도 기존의 작품과 차별화된다. 혼인

26) '昨者投詩 非爲其誨淫之意也 只欲試郎君之俯仰也 妾雖無狀 初非依市之徒 寧有鑽穴之道 必告父母 終成委禽之禮 則貞信自守 敢懈擧案之敬', <崔陟傳>, 424~425면/21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관계가 등장하는 <최척전> 이전의 작품에서는 남녀 주인공들이 혼인을 함과 동시에 가족이라는 테두리에 편입되는 듯하지만 그것은 혼인관계로 인한 직계존속(直系尊屬)과의 관계 맺음일 뿐이며 그 또한 서사화 과정에서 특별한 의미가 발현되지 않는다. 기존의 애정전기소설들의 남녀 주인공들은 혼인은 했지만 여전히 남녀관계를 통한 애정 지향의 연장일 뿐이다. 하지만 <최척전>은 다르다.

> "최척은 혼인 한 뒤로 하는 일마다 뜻대로 잘되어 집안 살림도 점차 풍족해졌다. 오직 한 가지 걱정은 자식 낳는 일이 더딘 점이었다. 그래서 최척 부부는 매달 초하루면 만복사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다."[27]

기존의 어떤 작품에서도 남녀가 혹은 부부가 된 후라도 자식 낳기를 바라는 기자(祈子) 치성(致誠)을 올리는 작품은 없다. 애정서사가 중심이었던 기존 작품들에서 자식 낳기를 바라는 것은 애정서사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존 작품들의 이러한 점은, 부부가 된 남녀 주인공이 후사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성과 사랑이라는 애정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서사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28]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서사로 나아가지 않고 애정서사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다.

> "옥영은 이달에 임신하여 마침내 아들을 낳았다. 아이를 낳고 보니 등에 아기 손바닥만 한 붉은 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아들의 이름을 '몽석(夢釋)'이라고 하였다."[29]

---

27) '陟取婦之後 所求如意 家業稍足 而常患繼嗣之尙遲 每以月朔 夫婦往禱於萬福寺', <崔陟傳>, 428면/28~29면.

28) 김지영, 「조선시대 애정소설에 나타난 사랑과 성」, 『한국 고소설과 섹슈얼리티』(한국고소설학회 편), 보고사, 2009, 55쪽.

29) '及期而果生男子 背上有赤痣 如小兒掌 遂名之曰夢釋', <崔陟傳>, 429면/29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기자 치성의 결과, 최척과 옥영은 몽석이라는 아들을 낳는다. 작품에서는 '장육불(丈六佛)'이 현몽하여 아들을 점지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인용문에 등장하는 옥영의 임신이다. 의당 남녀의 육체적 관계는 번식의 필요조건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임신과 출산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기존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거세되어 있는데, 이는 남녀의 육체적 관계가 애정과 쾌락을 지향하지만 번식을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작품의 전반을 지배하는 코드는 성적 욕망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척전>의 주인공은 결혼 후, 아이 낳기를 간절히 바랐으며 그 후 임신을 통해 아들을 얻게 되면서 기존의 작품들과는 다른 방향의 서사화가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Ⅲ. 〈최척전〉에 형상화된 가문 지향성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최척전>의 전반부는 기존의 애정전기소설의 장르관습을 어느 정도 따르고는 있지만 부부관계의 지향, 혼전 동침의 불이행, 후사의 탄생 등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지닌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해, 이러한 특징은 <최척전>이 기존 애정전기소설의 서사문법을 변주하여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장르의 출현을 모색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최척전>은 남녀관계를 바탕으로 한 애정 지향에만 머무는 작품이 아니라 부부, 부모, 부자, 모자, 고부, 조손, 사돈관계 등을 바탕으로 하는 가문 지향성을 지닌 작품이며 본격적인 가문소설의 출현을 예고하는 작품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반부의 특징은 바로, 후반부에 등장하는 가문 지향적 서사를 충실히 견인하기 위한 작가의 치밀한 작품 구성 방식과 서사화에 의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서 우리는 비로소 <최척전>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어떻게 관계 맺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최척전>의 전반부가 기존 애정전기소설의 영향 하에 있기는 하지만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러한 차이가 단지 개별 작품으로서 기존의 작품들과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르의 출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최척전>은 17세기 이전의 애정전기소설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17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가문소설의 출현에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3장에서는 이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17세기 후반에 창작된 <창선감의록>을 초기 가문소설로 지목하고 있다.[30] 이어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등이 본격적인 가문소설이라 할 수 있는데, 연구자는 이러한 가문소설의 출현에 <최척전>이 일정하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최척전>의 가족애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진척된 상태이다.[31] 언필칭 <최척전>에서 가족 지향성이 간취되는 것은 당연하다.[32] 그것은 작품의 표면에 잘 드러나 있는 특징이다. 하지만 연구자는 <최척전>의 이

30) 장효현, 「국문장편소설의 형성과 가문소설의 발달」, 『민족문학사 강좌』(민족문학사연구소 편), 창작과비평사, 1995.
양민정, 「초기 가문소설의 형성과 여성의 가문의식」, 『고소설연구』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31) 대표적으로 김문희(2000, 앞의 논문), 박희병(앞의 논문) 등의 연구가 있다.

32) 김문희는 <최척전>의 주요 등장인물들의 결핍과 충족을 통한 가족 지향성을 논하면서, 이 작품에는 '결핍된 가정에서 자란 인물들이 전란을 겪고 이산과 재회의 반복을 통해, 충족된 가족 구성원을 지닌 가정을 이룩하려는 의지(2000, 183쪽)'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의 '이차적 결핍(이별)'의 원인은 '전란'이며 '만남'의 원인은 '가족이라는 관계로 묶인 인물들의 가족애와 온전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갈망'(2000, 185쪽)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곧 '사회역사적 질곡(전란과 이산)을 통과하는 인간의 대응 양상'(2000, 186쪽)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면에는 가족 너머 가문을 지향하는 '가문애(家門愛)'[33]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전쟁으로 인한 이산과 재회를 통해 온전한 가족을 지향하는 것의 이면에서는 가족 그 너머의 가문에 대한 지향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척전>의 어떠한 부분이 가문 지향적인가?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는 혈연관계이며, 둘째는 혼인관계, 그리고 셋째는 여성 인물들이다. <최척전>에는 기존의 어떤 작품에서도 등장하지 않았던 혈연관계와 혼인관계의 다양한 양상과 가문 지향성을 지닌 여성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러한 점이 후속 장르의 출현에 일정하게 기여한 바라고 할 수 있다.

1. 혈연관계를 통한 후사 의식

<최척전>의 후반부는 최척 일가의 이산과 재회가 중심인 서사이다. 이러한 서사 전개 속에 3대가 등장하는 가계(家系)를 형성하게 되는데

33) '가문애(家門愛)'라는 용어는 연구자가 조어한 것이다. 이 용어는 최근 인문지리학에서 활발히 원용되고 있는 '장소애'(場所愛, topophillia)라는 개념어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푸 투안(Yi-Fu Tuan)은 '장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푸 투안 지음/이옥진 옮김, 『토포필리아』, 에코리브르, 2011, 13쪽)의 의미로서 '장소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장소애는 '모든 민족은 환경을 단순한 자원을 넘어 깊은 정과 사랑의 대상이자 기쁨과 확실성의 원천'(이푸 투안, 앞의 책, 12쪽)으로 인식하는데 바로 이러한 장소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말한다. 그는 또 장소애는 '촉각적으로 공기나 물, 흙에 닿아서 기분이 좋은 감각, 고향이나 추억의 장소, 생계수단을 대하는 사람들의 느낌 등에서 이와 연관된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거나 이를 어떤 상징으로 지각'(이푸 투안, 앞의 책, 146쪽)할 때 발현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소애는 인간적 삶의 환경적 근원에 의거한 무의식적 태도나 감정과 같은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자는 <최척전>에 형상화된 인물들의 가문 지향적 성향을 '가문애'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최척전>에는 가문에 대한 벌열의식이나 종통의 문제, 처첩의 문제 등과 같은 '가문의식'적 차원의 문제들이 형상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간적 삶의 근원으로서 가문을 지향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태도나 감정은 전란과 이산을 경험한 인간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면서 무의식적 차원의 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최숙(崔淑)-최척(崔陟)-몽석(夢釋)/몽선(夢仙)’이 바로 그들이다. 기존 작품에는 남녀 주인공의 혼인을 통한 직계존속으로서의 2대가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다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둘째 아들 몽선의 탄생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 “1년이 지나 또 아들 하나를 낳았다. 아이를 낳기 전날 밤에 장육불이 또다시 꿈에 나타났는데 태어난 아기를 보니 첫아이 때와 마찬가지로 등에 점이 있었다. 최척 부부는 장남 몽석이 다시 태어났다고 여겨 이름을 몽선(夢仙)이라고 지었다.”34)

최척은 전란으로 중국을 떠돌고 옥영은 일본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두 사람은 베트남에서 극적으로 만난 후, 중국인 송우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둘째 아들 몽선을 낳게 된다. 최척이 중국에 살면서 부친 숙과 아들 몽석을 그리워하던 중에 몽석을 닮은 몽선을 낳은 것인데 이 당시 최척으로서는 부친 숙과 맏아들 몽석의 생사를 알지 못하던 시기이다. 즉, 자신의 부친과 아들의 생사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고국으로 귀환하여 부친과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텐데 그러한 선택보다는 중국에 머물면서 다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혹여 불행하게도 부친과 아들이 죽었을 경우,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게 됨으로 아무리 상황이 급박한 전란 속일지라도 후사를 통해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가문 지향적 후사 의식이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몽선의 출생에 내포된 가문 지향성은 작품의 문면에서도 확인된다. 몽선이 자라 홍도와 혼인한 얼마 후, 최척이 다시 명나라 군대에 차출되어 서기로 종군하게 되자 옥영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자결하려고 한다.

---

34) ‘居一歲 又生一子 生兒之前夕 丈六佛又見于夢 兒生 亦有背痣 夫妻咸以爲夢釋再來 遂名之曰夢仙’, <崔陟傳>, 437면/44~45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끊어진 거문고 줄이 다시 이어지고 반쪽으로 나뉘었던 거울이 다시 합해진 것처럼 우리 부부의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져 제사를 받아 줄 아들까지 얻었지요."[35]

'제사를 받아 줄 아들(托祀之兒)'은 다름 아닌 둘째 몽선을 의미한다. 몽선을 낳아 혼인까지 시켰으니 이제 자신이 죽더라도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고 조상님의 제사를 이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몽선의 출생이 남녀의 지극한 애정의 결과라기보다는 가문의 대를 잇고자 한 후사 의식의 산물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36]

또한 지엽적인 것이지만 최척의 부친에게서도 가문 지향적 면모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작품의 서두에서 최척의 부친은 학문을 등한시하던 최척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처럼 나라에 전쟁이 나서 고을마다 무사들을 소집하고 있는 판에 사냥이나 하면서 늙은 애비에게 걱정만 끼치고 있으니 한심하구나. 머리 숙여 책을 읽으며 과거 공부에 힘쓴다면 비록 과거 급제는 못하더라도 전쟁터에 끌려가는 일은 면할 수 있을 게 아니냐."[37]

당시 사회에서 양반 사대부들은 일반적으로 입신양명의 삶을 지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문에 힘써 과거에 급제하여 출사를 해야 했는데 최척의 부친은 학문을 입신양명을 위한 것이 아닌 전란에서의 보신(保身)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숙의 이러한 태도는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인데 이러한 판단의

35) '斷絃再續 分鏡重圓 旣結已絶之緣 幸得托祀之兒', <崔陟傳>, 438면/46면.
36) 후사에 대한 의식은 당시 사회의 보편적 의식이므로 이 작품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는 기존의 애정전기소설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최척전>의 이러한 면모는 분명 가문 의식과 연관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7) '況今國家興戎 州縣方徵武士 汝無以射獵爲事 以胎老父憂屈受書 從事於擧子業 雖未得策名登第 亦可免負羽從軍', <崔陟傳>, 421면/15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기저에는 자칫 편부슬하의 최척이 전쟁터에서 끌려가 죽기라도 한다면 귀한 자식을 잃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대가 끊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최척이 변사정의 의병으로 차출되어 최숙의 바람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최숙 역시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차원에서 자식에 대한 애정과 후사 의식을 지닌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2. 혼인관계를 통한 가문 지향

<최척전>은 혈연관계보다는 혼인관계를 통해 더 강력한 가문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척전>에서 혼인은 두 번 등장한다. 최척과 옥영의 혼인, 몽선과 홍도의 혼인이 그것이다. 최척과 옥영의 혼인은 이미 살핀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흥미 있는 것은 옥영과 옥영의 어머니 심씨의 대립이다. 최척과 옥영의 혼인과정에서 모녀는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부자 사위를 지향하는 심씨와 현명한 남편을 지향하는 옥영의 대립이 그것이다.

> “제가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며 의탁할 곳 없는 신세니 하나뿐인 딸은 부잣집에 시집보내고 싶어요. 가난한 집이라면 아무리 똑똑해도 딸을 주고 싶지 않네요.”38)

> “제가 가만히 최생을 살펴보니 날마다 외삼촌께 와서 공부하는데 사람됨이 진실하고 중후하여 정성스럽고 믿음직해서 결코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이 아니더군요. 제가 이 사람의 짝이 된다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아요. 더구나 가난은 선비에게 늘 있는 것이잖아요. 의롭지 못하면서 부유한 삶을 저는 원치 않아요. 그러니 제가 그 집에 시집갈 수 있게 해 주세요.”39)

---

38) ‘我以盡室流離 孤危無托 只有一女 欲嫁富人 貧家子 雖賢不願也’, <崔陟傳>, 425면/23면.

39) ‘竊聞崔生 日日來學於阿叔 忠厚誠信 決非輕薄宕子 得此爲配 死無恨矣 況貧者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앞의 인용문은 최척을 사위로 삼는 것이 어떠냐는 정생원의 말에 대한 심씨의 반응이다. 전란을 피해 이리저리 떠돌던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여 부유한 사람을 사위로 맞아 거기에 의지해서 안정을 도모하려는 생각이다. 사람됨보다는 부를 우선한 판단이다. 하지만 옥영은 가난은 중요치 않다고 말한다. 선비에게 가난은 늘 있는 것이며 의로움이 더 중한 것이니 최척에게 꼭 시집가고 싶다는 것이다. 옥영의 강단 있는 말에 심씨는 설득당하고 결국 최척과 옥영은 길일을 택해 혼례를 치르기로 한다.

하지만 둘의 대립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척이 변사정의 의병으로 차출된 상황에서, 옥영과 심씨는 부유한 양생을 두고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다.

> "넌 왜 이렇게 어리석게 고집을 부리느냐? 어른의 처분을 따를 일이지 네가 뭘 안다고 그래?"40)

> "한밤중 꿈결에 문득 꼴딱꼴딱 숨넘어가는 소리가 들오는 것이 아닌가. 잠을 깨어 딸이 자는 자리를 더듬어 보니 자리에 없었다. 깜짝 놀라 찾아 보니 옥영은 창문 아래에서 수건으로 목을 맨 채 엎어져 있었다. 손발이 모두 싸늘했고 목구멍에서 숨넘어가는 소리가 차츰 희미해지더니 곧 숨이 끊어졌다."41)

최척이 혼례 일을 넘겼음에도 돌아오지 않자, 심씨는 양생과의 혼인을 정하고 날까지 잡아 버렸다. 옥영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방법은 오직 죽음밖에 없다고 판단하고서 자결을 시도한 것이다. 놀란 심씨는 더 이상 옥영의 뜻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2차 혼사 장애도

士之常 不義而富 吾甚不願 請決嫁之', <崔陟傳>, 426면/24면.

40) '汝何執迷如此 當從家長之處分爾 女兒何知', <崔陟傳>, 428면/27면.

41) '夜深夢間 忽聞喘息 汨汨之聲 覺而撫其女 不在焉 警起索之 玉英乃於窓壁下 以手巾結項而伏 手足皆冷 喉嚨間汨汨之聲 漸微且絶', <崔陟傳>, 428면/27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극복된다.

그런데 옥영이 이처럼 극단적인 방법으로 최척과의 혼인을 지향한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옥영이 처음부터 남녀관계를 지향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이유에 대해 전란으로 인한 고단한 삶의 지속이라는 점과 더불어 옥영의 아버지 이경신(李景新)과 오빠 이득영(李得英)의 부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는 옥영이 자신의 혼인으로 인해 허물어져가는 가문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 많고 부유한 사람보다는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옥영의 최척 구혼은 단순히 애정만이 중시되는 남녀관계가 아니라 집안의 미래를 중시하는 부부관계를 추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국 옥영은 최척과의 혼인을 통해 친정 가문의 회복이라는 중요한 가업을 수행하려고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42]

<최척전>에 등장하는 두 번째 혼인관계는 몽선과 홍도의 혼인이다. 중국인 송우의 도움으로 중국에 머물고 있던 최척과 옥영은 둘째아들 몽선을 낳은 후 이웃에 사는 홍도라는 중국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된다.

몽선의 출생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당시에 최척은 부친과 몽석의 생사여부를 알지 못하던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몽선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후 시간이 지나

42) 아마 <최척전>이 본격적인 가문소설이었다면 옥영이 혼인 한 후, 친정의 번창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될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척전>은 아직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다만 기존의 애정전기소설의 여주인공들과는 다르게 남편을 고를 때 자신의 처지와 집안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상대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이는 <최척전>의 옥영이, 초기 가문소설인 <창선감의록>의 출가한 여성인 성부인이 자신의 친정 가문의 번창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점과는 다르지만 혼인 과정에서부터 친정 가문에 대한 의식을 지닌 인물이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창선감의록>에 형상화된 성부인의 친정 관리에 대해서는 양민정(앞의 논문, 50~53쪽)의 논의를 참조할만하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몽선이 장성하게 되었으니 의당 몽선의 혼인을 통해 후사를 이어야함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몽석의 생사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몽선을 먼저 혼인시킨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즉, 몽석의 생사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자칫 당시 사회에서 금기시되었던 역혼(逆婚)이 될 수도 있음을 감수하면서도 몽선의 혼인을 추진한 것은 아무래도 가문의 대를 잇고자 한 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여성인물의 가문 지향

<최척전>은 '이옥영전'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옥영의 역할이 절대적인 작품이다. 전술한 논의 과정에서도 드러나듯이 옥영은 이씨 집안의 딸로서, 최씨 집안의 며느리로서, 최척의 아내로서, 몽석과 몽선의 어머니로서, 홍도의 시어머니로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면서 작품을 이끌어간다. 그러면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 아리따운 열다섯 처녀, 당찬 딸, 현숙한 아내, 억척같은 어머니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서 기존의 작품에서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여성상을 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옥영의 또 다른 페르소나는 바로 가족 그 너머의 가문을 지향하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옥영은 최척과의 혼인 과정에서부터 혼인이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며 나아가 혼인으로 인해 가문의 흥망과 존폐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43] 옥영의 이러한 성격은 작품 전반에 걸쳐 지배적이다. 후반부에 등장하는

43) 혼인의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드러내는 옥영의 모습에서 중국 재자가인(才子佳人)소설과의 연관성을 추측할 수도 있다. 남녀관계의 결합에서 집단보다는 개인을 강조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옥교리>, <호구전> 등과 같은 중국 재자가인소설에서 흔히 발견되는 특징이다. 그렇다고 <최척전>이 이들의 자장 내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최척전>의 옥영은 궁극적으로 남녀의 애정보다는 가족 그 너머의 가문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을 강조하는 재자가인소설과는 분명한 차이를 지닌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해로 귀환 과정에서도 그녀의 가문 지향성은 여전하다.

> "나는 마땅히 고국으로 돌아가 네 아버지를 찾아봐야겠다. 만일 돌아가셨다면 창주에 가서 죽은 원혼이라도 위로한 뒤 선산에 장사 지내 사막에서 굶주리며 떠도는 신세를 면하게 해드려야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일 게다."[44]

명나라의 군사로 출정한 최척이 죽은 줄 알고 있던 옥영이 몽선과 홍도에게 조선으로 귀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한 말이다. 귀환의 목적이 이국에서의 서러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남편의 원혼을 달래 선산에 장사 지내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남편에 대한 애정의 표현임과 동시에 옥영 스스로가 최씨 가문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옥영의 이러한 면모는 문면의 곳곳에서 확인된다.

> "네 부친과 조부께서 모두 이역 땅에서 비명횡사하셨다면 선조의 묘는 누가 돌보겠니? 친척들 또한 난리로 다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게야. 친척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이 또한 다행한 일 아니겠니?"[45]

해로 귀환을 위한 출항을 앞 둔 옥영이 비장한 각오로 몽선과 혼도에게 한 말이다. 이 인용문을 통해, <최척전>의 옥영이 단순히 가족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그 너머의 가문을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종적으로는 남편과 시부모의 조상들에 대한 인식과 횡적으로 여러 친척들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는데, 이는 가족으로는 한정 지을 수 없는 범위이다.

---

44) '我當往求於本國 苟死矣 親往昌州境上 招得旅魂 葬於先壟之側 使免長餒於沙漠之外 則吾責塞矣', <崔陟傳>, 443면/55면.

45) '汝父汝祖 雖皆暴骨於異域 而先朝丘墓 誰復看護 內外親屬 亦豈盡歿於亂離 苟得相見 是亦一行', <崔陟傳>, 444면/56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옥영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홍도 역시 부분적으로 가문 지향성을 담지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홍도는 몽선과 혼인할 당시, 돌이 되기도 전에 부친 진위경(陳偉慶)이 조선 출정으로 끌려갔으며 얼마 후 어머니까지 죽게 되어 이모와 함께 살고 있던 상황이었다. 최척과 옥영으로서는 이러한 한미한 집안의 여식을, 그것도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인 홍도를 며느리로 맞이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최척과 옥영은 전란으로 중국에 머물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 몽선의 혼인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차에 이웃에 사는 홍도라는 아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 "홍도는 이모 밑에서 자라며, 아버지가 이역 땅에서 돌아가셔서 얼굴 한번 뵙지 못한 것을 늘 애달파했다. 아버지가 죽은 나라에 꼭 한번 가서 초혼하고 왔으면 하여 밤낮으로 한이 가슴에 사무쳤으나 여자의 몸으로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몽선이 아내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모와 상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씨 댁 며느리가 되어 조선 땅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46]

인용문에 나타나듯이 홍도가 몽선과 혼인한 것은 남녀의 애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가문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죽은 줄 알고 있던 아버지의 원혼이라도 달래주려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 조선인과 혼인을 맺고자 한 것이다. 남녀의 애정보다는 집안(가문)을 먼저 생각하는 면모가, 앞서 살핀 최척과 옥영의 혼인 과정에서 드러난 옥영의 모습과 어느 정도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홍도 역시 어느 정도 가문을 지향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옥영이 해로 귀환을 결정했을 때, 남편인 몽선이 반대했음에도 오히려 홍도 자신은 몽선을 설득

46) '紅桃養於其姨家 常痛其父歿於異域 而生父知其面目也 願一至父死之國 復哭而來 耽耽寃恨銘于心腑 而身爲女子 計不知所出 及聞夢仙求婦 議於其姨曰 願得爲崔家婦 而冀一至於東國也', <崔陟傳>, 437면/45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하면서 옥영의 조선행에 적극 동의하는 자세를 취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Ⅳ. 결론: 소설사적 의의를 대신하여

<최척전>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애정서사가 중심인 전반부와 가족서사가 중심인 후반부의 관련 양상을 면밀히 살펴 그것에 의거하여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서, 먼저 <최척전>의 작품 구성 방식을 고찰하였으며 나아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작품의 전반부는 첫째, 남녀주인공이 남녀관계가 아니라 부부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는 옥영이, 남자가 아닌 남편으로서 최척을 맞이하려는 태도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둘째, 남녀주인공의 혼전 동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연애를 통한 남녀관계로서의 애정 추구보다는 혼인을 통한 부부관계로서의 행복 추구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셋째, 기자 치성을 통한 후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작품에서 남녀 주인공이 추구하는 행복은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혼인을 통해 아들을 낳아 후사를 도모하는 데서 완성된다.

그런데 이 세 측면은 기존의 작품과 차별화되는 <최척전>의 특징이며 이는 작품 후반부의 서사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일반적으로 가문소설은 여러 세대로 이루어진 가문의 성쇠, 가문과 가문의 갈등, 가문내적 구성원의 간에서 야기되는 갈등들이 중심서사로 이루어지는 작품을 말한다. 또한 주인공은 단순히 가정을 지향하지 않고 가정을 넘어선 가문을 지향하면서 가문적 연대의식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주제 역시 특정 가정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지향한다.[47]

이런 측면에서 <최척전>은 가문소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연구자 역시 <최척전>을 가문소설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가문소설은 가문의 내외적 갈등, 특히 가문 내적으로는 여러 세대에 걸쳐 형성된 처첩 및 처처의 대립, 종통의 문제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고 가문 외적으로는 가문의식 및 벌열의식을 바탕으로 한 다른 가문에 대한 배타적 모습과 자기 가문에 대한 번창 등이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보이지만 <최척전>에서 이러한 면모를 발견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가문소설에 등장하는 가문이 무엇을 기본 요건으로 형성되는가를 고려한다면 가문소설의 발생에 있어 <최척전>의 가문 지향성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가문은 혈연관계와 혼인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가계를 형성하는 혈연관계가 한 축이 되고, 거기에 혼인관계가 결합하여 하나의 가문을 형성하는 것이다.

<최척전>의 후반부는 기존의 작품들처럼 남녀관계를 바탕으로 한 애정 지향에 머물지 않는다. 전란이라는 역사적 질곡 속에서 최척 일가의 이산과 재회가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데 이 과정에는 다양한 혈연관계와 혼인관계가 등장한다. 그로 인해 등장인물들은 부부, 부모, 부자, 모자, 고부, 조손, 사돈 등으로 확장된다. 이는 혈연과 혼인을 통한 가문의 형성 과정을 일정하게 노정(露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등장인물들 역시 가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의 감정을 토대로 한 '가문애(家門愛)'를 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최척전>은 본격적인 가문소설이 등장하기 이전의, 가문의식(家門意識)의 잠재태로서 '가문애'가 발현되는 가문소설의 맹아적 면모를 갖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작

47) 가문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아래의 논의들을 참조할 수 있다.
이수봉, 『가문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78.
우쾌제, 『한국 가정소설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이원수,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1.
이승복, 『고전소설과 가문의식』, 월인, 200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품의 이러한 특징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서사 전개의 유기성를 고려하여 가문 지향성이라는 주제 의식을 구현하기 위한 작가의 서사화 전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척전>은 17세기 이전의 애정전기소설의 연장에 있으면서도 17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가문소설의 출현에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KYOBO 교보문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문헌

권혁래, 「<최척전>에 그려진 '유랑'의 의미」, 『국어국문학』150, 국어국문학회, 2008, 207~235쪽.

김기동, 「불교소설 <최척전> 小考」, 『불교학보』11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1974, 177~190쪽.

김기동, 『李朝時代小說硏究』, 성문각, 1974.

김문희, 「17세기 애정소설의 장르적 역동성」, 『한국고전연구』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36~69쪽.

김문희, 「<최척전>의 가족 지향성 연구」, 『한국고전연구』 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161~190쪽.

김지영, 「조선시대 애정소설에 나타난 사랑과 성」, 『한국 고소설과 섹슈얼리티』(한국고소설학회 편), 보고사, 2009, 37~78쪽.

김현양, 「<최척전>, '희망'과 '연대'의 서사」, 『열상고전연구』24집, 열상고전연구회, 2006, 75~100쪽.

민영대, 「<최척전> 고」, 『고소설연구』6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247~280쪽.

민영대, 『조위한의 삶과 문학』, 국학자료원, 2000.

민영대, 「<최척전> 연구사」, 『고소설연구사』, 월인, 2002.

박희병, 「<최척전>-16·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과 가족이산」,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83~106쪽.

박희병 표점·교석,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 2005.

박희병/정길수 편역,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베개, 2007.

양민정, 「초기 가문소설의 형성과 여성의 가문의식」, 『고소설연구』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37~64쪽.

엄태식, 「<최척전>의 창작 배경과 열녀 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81~124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우쾌제, 『한국 가정소설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이명선, 「朝鮮文學史」, 『朝鮮文學社』, 1948.
이수봉, 『가문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78.
이승복, 『고전소설과 가문의식』, 월인, 2000.
이원수,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1.
이종필, 『조선중기 전란의 소설화 양상과 17세기 소설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3.
장효현, 「국문장편소설의 형성과 가문소설의 발달」, 『민족문학사 강좌』(민족문학사연구소 편), 창작과비평사, 1995, 268~282쪽.
정명기, 「<최척전>」, 『한국고소설연구』, 일지사, 1993.
진재교, 「월경과 서사-동아시아의 서사체험과 '이웃'의 기억」, 『한국한문학연구』46집, 한국한문학회, 2010, 129~162쪽.
최원오, 「17세기 서사문학에 나타난 월경의 양상과 초국적 공간의 출현」, 『고전문학연구』3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189~224쪽.
이푸 투안 지음/이옥진 옮김, 『토포필리아』, 에코리브르, 201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The Method of organization and Family-oriented aspects of 〈Choi Cheok Jeon〉

Chung, Ku-Sik

In researching <Choi Cheok Jeon>, it is important to draw out the theme of the novel by investigating relations between the former and latter halves of the work. Here, the first half of the novel mostly consists of narration about love and the second half, about family. Above all, this study examined how <Choi Cheok Jeon> is narratively developed. With results of the examination, then, the study tried to newly interpret the theme of the novel. The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ale and female protagonists of the novel seeks their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not between man and woman as found in the former half of the work. This is clearly supported by Ok Young's attitude to accept Choi Cheok not as just a man, but as her husband. Second, both the protagonists do not sleep together before marriage. This indicates that they pursue happiness from their marital relationship rather than just love through relationship between the opposite sexes. And third, the two main characters obtain their offspring through praying for son-bearing. Thus, the male and female protagonists reach complete happiness by having a son as their offspring after making their marital relationship.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These three points make <Choi Cheok Jeon> clear discriminated from other works. They also provide a strong basis for narrative development in the latter half of that novel. Unlike other novels, <Choi Cheok Jeon> does not adhere to affection based on man-woman relationship in its latter half. This part provides a panoramic drama regarding situations the Choi Cheok family experienced in the disturbances of war from their dispersion to reunion. Those situations include making lots of kinships and marital relationships, extending character relations from husband and wife to parent and child, father and son, mother and so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grandparents and grandchild, and matrimonial relations. This indicates a process through which a family was properly established by blood and marriage. In the process, characters of the novel developed 'familyphilia' with the affection and love of their family. In this sense, <Choi Cheok Jeon> was an embodiment of 'familyphilia' based on which the consciousness of family, It was a forerunner of family novels before they began to be written in earnest. This nature of the novel may be seen as an outcome from narrative strategies that its author took to make apparent the theme of family orientation under a full consideration of organic narrative developments from the former to the latter parts of the novel.

Key Words : <Choi Cheok Jeon>, narration about love, narration about family, familyphilia, family-orientation, family novel.

▌논문접수 : 2013년 10월 30일
▌심사완료 : 2013년 12월 8일
▌게재확정 : 2013년 12월 16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